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지

자랑스러운 KSLA人

김정자 | (전)한국교육개발원

자랑스러운 KSLA人

“우리의 영원한 젊은 언니,
김정자 부장님”



호호아줌마, 뽀글뽀글 양배추 머리, 분홍 립스틱, 미니스커트

김정자 부장님하면 떠오르는 단어이다. 웃을 때 늘 치아에 립스틱이 묻어 있고, 결재를 받을라치면 결재 서류에도 립스틱이 묻어 있고, 심지어 아이를 개발원에 데리고 오면 어김없이 우리 아이 얼굴에도 립스틱을 묻혀주시던 우리의 영원한 젊은 언니, 그리운 김정자 부장님.

입사 첫날, 인사팀장님을 따라 다른 신입직원들과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잠깐 들른 도서실에는 웬 젊은 처녀 선생님과 나이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 계셨다. 그 젊은 처녀 선생님은 이쁘고 날씬한 다리를 드러내고 짧은 자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뽀글뽀글 파마를 해서 하나로 뒤에서 묶어 올렸는데, 인사를 드리자 어디서 그런 애교스런 목소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쾌하고 이쁜 목소리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몹시 긴장했던 나는 그 목소리 하나에 긴장이 풀어지며, 아~ 좋은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후 알고 보

니, 아니 글썄 그 젊은 처녀선생님이 아이가 둘(그것도 고등학생)이나 있고, 결혼한 지 한참 된 50대 아줌마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자 부장님을 오해한 게 나 뿐만은 아니었다. 한 가지 여담을 소개하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상대방이 대뜸 “엄마 바꿔라” 했다는데, 워낙 목소리가 아가씨 뽀글 정도로 지금도 전화를 드릴 때면 어떤 젊은 아가씨가 만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곤 한다.

김정자 부장님은 198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 도서실에 입사하여 2007년 12월 정년퇴임할 때까지 25년간을 근무하면서 도서관 발전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의 다양한 업무에서 타고난 열정과 지성, 노력으로 빼어난 성과를 이루셨다. 내가 입사한 199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기안문을 쓰거나, 인쇄된 폼에 손으로 내용을 기재하는 등,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무기기로는 타자기를 사용하거나 PC로 보석글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대출/반납 기능은 물론 반납독촉통지문 인쇄나 열람통계 출력 등도 가능한 열람시스템을 사용하

자랑스러운 KSLA人

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김정자 부장님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후 직접 만드신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음 KOLAS 초기 버전을 출시할 즈음이었는데 입사 초년생의 눈에 개인이 혼자서, 그것도 사서가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데에 절로 존경심이 생겨났다. 1994년에 김정자 부장님은 교육정보자료 부장으로 승진하시면서 도서관 전산화를 추진하고, 1996년에는 토털시스템인 KEDILAS를 구축하였다. KEDILAS는 상용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여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최초의 도서관 토털시스템으로 현재의 전자도서관이 있기까지 그 초석이 되는 의미 있는 시스템이었다. 1998년에는 KEDILAS를 업그레이드하고 웹상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도서관보다 빠른 움직임과 앞선 신기술을 도입하다보니 이런 부장님을 뒷받침해야 하는 후배 사서로서는 업무 부담에 약간 불만이 생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는 자극이 되기도 했다.

우리 도서관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른 도서관보다 시설이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서들과 도서관의 주이용자인 연구원 간의 관계가 무척 좋아서, 연구원들이 사서들에게 정보 검색이나 자료를 부탁하는 데 어려워하지 않으며, 사서들은 연구원들에게 진심을 다해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데 있다. 서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쌓이고 도서관실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도 김정자 부장님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늘 이

용자나 직원을 상대할 때 상대방이 어려워하지 않게 웃음과 친절로 먼저 나서서 격의 없이 대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아직도 연구원들은 KEDI 도서관이 국내 최고라 자부하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통 사서로 입사하면 퇴직 때까지 도서관에서 사서로만 근무하다 퇴직을 한다. 그러나 김정자 부장님의 경우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2002년에 홍보·출판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통상 홍보·출판팀장은 연구원이 보직으로 발령받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파격적인 인사발령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정자 부장님의 외모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뽀글이 긴머리를 탈피해서 멋진 커트, 옷차림도 편하고 야한 색깔의 미니스커트와 블라우스에서 점잖은 검색 정장으로 바뀌었다. 당시 같은 팀이 아니라 자세한 업적(?)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에 의하면, 밤낮으로 기자들을 상대하느라 긴장과 바쁜 나날을 보내셨던 것 같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반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에게 고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73년 문교부의 위탁으로 만들어진 사업부서이다. 김정자 부장님이 이곳에 발령받자마자 시작한 일은, 그동안의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 그동안의 성과와 업적을 DB화하는 일이었다. 문헌정보학이 기반이었던 김정자 부장님이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로 발령받지 않았다면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자료는 아직도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유실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들이 챙기지 못

자랑스러운 KSLA人


하는 자료들이 사서인 김정자 부장님 손에서 소중한 자료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김정자 부장님은 [반딧불]이라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뉴스레터 제작을 담당하셨는데, 이는 당시 줄고 있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내에서의 업적 외에 김정자 부장님은 한국교육학회 사무국장과 사회과학정보자료기 관협의회(KOSSIC)(이후 지식정보공유협의회로 명칭 변경,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로 통합) 사무국장 및 회장을 역임함으로써 교육전문도서관 사서로서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

김정자 부장님은 넘쳐나는 끼와 에너지로 업무뿐 아니라 잘 놀기로도 유명하다. 회식을 가면 식사 후에 에너지 발산을 위해 꼭 노래방을 가는데, 한두 시간 동안 꼬박 서서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절대로 앉는 법이 없으시다. 한 남자 연구원의 증언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김정자 부장님과 부르스를 추었는데, 부장님의 브로치가 그 연구원 와이셔츠에 붙어있는 채로 집에 가는 바람에 밤새 아내분께 혼났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설악산으로 '2000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전직원 워크샵'을 갔을 때에는 장기 자랑 시간에 부장님의 춤과 노래, 그리고 외모로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압도하면서 MVP를 수상한 바도 있다.

김정자 부장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장님의 첫인상과 남겨진 인상은 대동소이하다. 부장님의 정년퇴임 선물로 한국교육개발원 임직원이 제작한 "김정자 선생님께 드리는 영상편지"를 통해 김정자 부장님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인상과 평가(?)를 잠깐 소개한다.

- 유쾌, 상쾌, 통쾌, 명랑소녀, 상금하고 톡톡튀는 사람
- 어린이가 같이 순수함, 여성스러움, 열정적이고 활기찬 웃음, 밝은 모습
-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에너지를 늘 선사하는 사람
- 항상 젊고 긍정적인 사람
- 푸근한 사랑을 갖고 있는 KEDI의 언니, 누나
- 여름에 그늘을 만드는 아름드리 등나무 같은 존재
- 일에 대한 열정, 선후배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
- 도서실 전산화, 정보화 마인드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한 아이디어 뱅크

홍보·출판팀장 이후에 다시 돌아온 뽀글이 머리와 분홍립스틱, 진한 화장에 S라인 몸매를 자랑하는 부장님, 가수 박정현과 비를 좋아하며, 지금은 여유로운 퇴직 이후의 생활을 즐기며 꾸준히 웨이트트레이닝을 다니시는 강남의 멋진 사모님. 여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시대의 아이콘을 추종하는 부장님, 요즘은 애니팡에 푹 빠져 계신다. 여러분~ 하트 좀 많이 보내주세요~~~ 

글_신경희